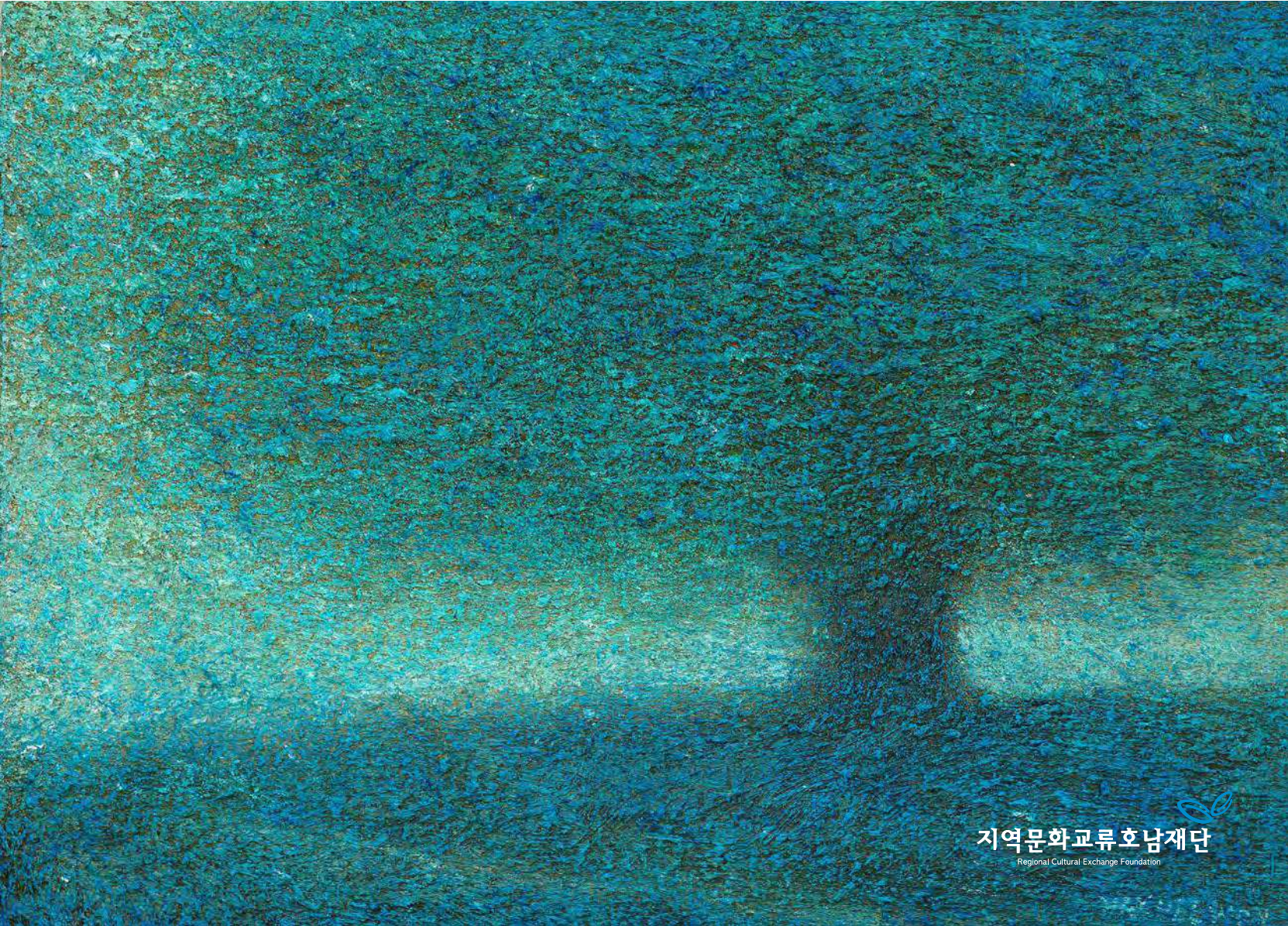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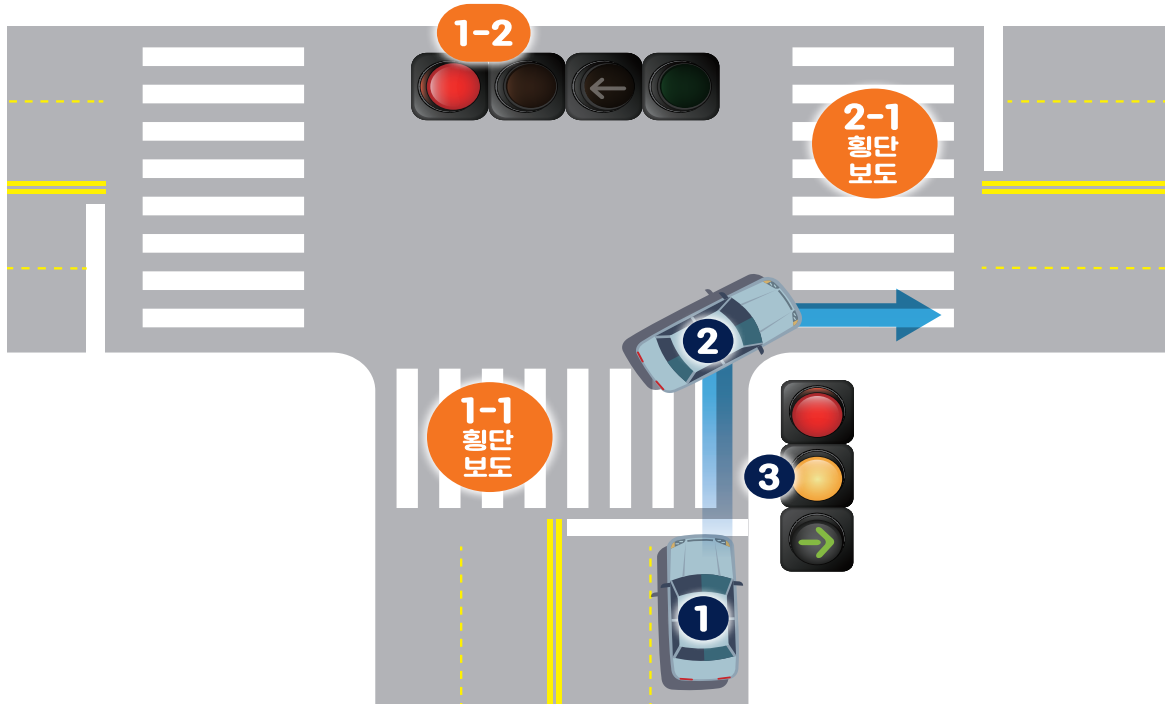
창

2023 | 여름 vol.61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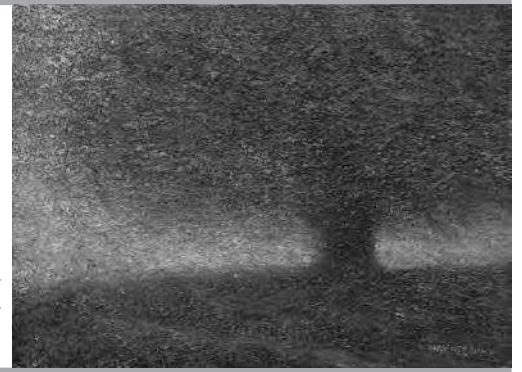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 정지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한화원, 푸른나무, 72.7x53cm, Oil on canvas, 2023.
1965년 광주 출생. 조선대학교 미술과 졸업. 개인전 70회.
대동 미술상 수상, 원진미술상 수상,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수상, 국무총리상 수상, 2021 광주 시민대상 문화예술부분 대상 수상, 광주시 남구 굿모닝 양림축제 조직위원장,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화행사 추진위원장, 2021 제1회 양림골목비엔날레 행사위원장, 2023 양림골목비엔날레 집행위원장, 한화원미술관 관장.

2		‘창’을 열며 〈조대신문〉에 발표한 다형의 시 「희망」	백수인
3	특집 기획	민선 8기 1년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 변화하는 환경과 변하지 않는 광주 문화 예술로 밥 먹고 살기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문화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도시와 건축, 제대로 가고 있나? 민선 8기 1년, 문화협치에 대한 단상	전고필 엄수경 최성혁 박경섭 정진삼
16	문화 + 人	문화인 인터뷰 정찬일 광주민예총 이사장 ‘민족’과 ‘진보’를 넘어 ‘공감’과 ‘실천’을 향해	이지호
21		청년 문화인 해금예술가 김단비 “내 음악을 해야겠다”	김단비
24	연재 코너	연재코너_ 고전신화 이야기 텅그리와 부르한 2	김상윤
27	기획 연재	건축과 광주문화 ② 건축자산과 근대문화유산	신응주
30	문화 공감	진단 복합쇼핑몰,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 무등산(無等山)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기우식 이해모
34		프리뷰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주 흥
36		문화특 “몽(夢) 클래스...” 야생의 새를 꿈꾸며	김정희
38		광주 청년이 느끼는 지방의 문화 접근성	현서라
40	포토 에세이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자기 자리	김옥열
42		재단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조대신문〉에 발표한 다형의 시 「희망」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고문



다형 김현승의 시 「希望」은 1955년 7월 1일자 〈조대신문〉에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작년(2022년)에 〈조대신문〉 영인본에서 찾아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반 독자는 물론 김현승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한 『다형 김현승 전집』(다형김현승시인 기념사업회, 2012)에도 누락된 작품이다. 지금까지 그의 시 작품 중 ‘희망’에 관한 시는 네 편이었다. 「希望이라는 것」(『詩文學』 1965년 4월호), 「希望에 붙여」(『문학춘추』 1965년 11월호), 「希望」(『창작과비평』 1974년 봄호), 「希望에 살다가」(발표지 미상, 시집 『마지막 지상에서』, 창작과비평사, 1975)가 그것이다. 이들 중 제목이 같은 작품조차도 〈조대신문〉의 「希望」과는 내용과 시적 발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시는 김현승의 ‘희망’에 관한 시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며 시적 의미도 독창적이다.

김현승은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4월에 조선대학교 문학과 교수로 부임한다. 숭실학교 교사와 교감을 거친 후 문단 활동에만 전념하던 그가 다시 대학의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조선대 문학과는 1946년 개교 이래 김기림이 ‘시론’과 ‘서양문예사조사’ 등의 과목을 강의해 왔으나 그가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됨에 따라 그 빈자리를 김현승이 이어가게 되었다.

조선대에서 발행하는 〈조대신문〉은 그가 재직 중일 때인 1954년 9월 15일 창간, 당시 문학부 교수(학부장)

극작가 장용건이 관장하고 있었다. 김현승 시인은 조선대에 교수로 재직할 때는 물론 1960년 4월 숭실대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종종 〈조대신문〉에 글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조대신문〉에서 발견된 그의 글은 두 편의 시와 네 편의 산문이다. 이 중 한 편이 이 작품이다.

希望,/너의 잔뼈가 자라는 땅은,/언제나 거칠고
외로운/나의 마음//너를 세워/地表 위에 못 박으
면,/너는 어둠에 빛나는 나의 十字架//너를 깊이/
陰府에 파 묻으면/너는 또한 純金처럼 더욱 芳醇하
여 지더라//希望,/바람과 같이 희망한 것,/燈불과
같이 꺼져가는 것에/生命을 불어 넣을 줄 알더라//
별과 같이 아득한 것에/너는 體溫을 스며들게 할
줄도 알더라//그 꽃이 떨어지고,/그 그늘마저 질
때에도,/希望,/너는 와서 나와 함께 永劫의 後日을
위하여/오오, 그 거룩한 무덤을 지킬 줄 알더라

- 「希望」 전문

68년 전 〈조대신문〉에 발표한 이 작품은 ‘희망’이라
는 추상적 관념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데에 특성이 있
다. 즉 ‘희망’을 2인칭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가 청자 ‘너’
에게 그의 속성을 형상화하여 건네는 담화 형식을 취한
시이다. ♪

민선 8기 1년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

이번 호 『창』 특집기획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문화도시 광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현장의 예술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를 지향하는 민선 8기 문화행정(정책)의 현 주소를 바탕으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광주,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광주의 해법도 함께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변화하는 환경과 변하지 않는 광주 문화
전고필_ 향토사전문책방 이목구심서 대표
- 예술로 밥 먹고 살기
엄수경_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문화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최성혁_ 광주청년센터 청년응원위원
- 도시와 건축, 제대로 가고 있나?
박경섭_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
- 민선 8기 1년, 문화협치에 대한 단상
정진삼_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변화하는 환경과 변하지 않는 광주 문화

1. 들어가면서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를 거론한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무성했던 담론들이 발화되며 우여곡절은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때론 서울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경주에서 빛받치던 문화가 어떻게 중심이 있느냐는 말도 이제는 잠잠해졌다. 그 이유인즉 해 놓고 보니 별것 아니고 건물 하나 덩그러니 들어선 것이란 점, 그로 인해 입방아 찢던 그들은 펍 여유로워졌다. 건물과 사람은 있는데 담론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아젠다를 선점하게 되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광주는 전당을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쟁의 장이 되기도 하고, 미래 세대의 육성을 위한 교육이기도 하고, 관람객의 집객에 목적을 둔 이벤트성 향유 잔치이기도 하다. 핑핑 눈이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 앞에서 허기를 느낀다. 당연히 광주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발신하는 논쟁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재한 것. 이 텅빈 충만을 필자는 광주시의 행정과 광주 지식인들의 짹짹에 있다고 짐작해 본다. 비평이 부재한 광주가 된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 낡고 진부한 학연, 지연, 혈연의 세습 사회는 오랫동안 견재하여 새로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

서 혁신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포드시스템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광주식의 생존법이다. 민선 8기 지난 1년 광주는 더욱 고요해졌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과거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일들이 주를 이뤄 진행되었다. 정무라인에서도 문화와 관련한 특징들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문화분야의 일경험이나 정책경험이 풍성해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이끌기 버거운 터인데, 아쉽게도 이런 일을 도모할 만한 이들을 찾기 어렵다. 그런 중심에 시장이 있기에 이슈를 찾거나 아젠다를 선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닐까 여겨진다. 삶의 가장 근간이자 행복의 척도를 제공하는 문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정책으로 습합하여 일로서 해결하는 이들이 없으니 그저 관행대로 가는 것이다.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예술가와 시민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정작 부메랑은 그들 자신을 향해 돌아간다.

2023년 현재 광주의 문화 시계는 멈추어 있다.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입을 닫았다. 불필요한 잡음으로 행여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무언가의 압박감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민선 8기가 시작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되었을 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주최로 지정 토론에 들어설 때가 있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 정부가 가져온 장밋빛 청사진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모든 것은 “꿀잼도시”를 향해 순번을 기다리는 듯했다.

한 도시가 재미진 곳으로 브랜딩하는 것을 말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두통 투성이인 지상에서 한 곳 만이라도 시름을 놓을 수 있는 도시라면 한번 가보고 싶어질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광주란 것인지? 도시의 이미지 전환과 관계 인구의 유입을 통해 관광수익의 확장을 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목적이란 열쇠말을 잘 못 찾은 것이다. 환대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하드웨어가 도입되고, 입으로 꿀잼도시라고 외친들 이는 허공에 샷대질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광주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자 이것저것 살피는데, 딱히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도입기라서 그런 듯 하나 싶기도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보여지는 시퀀스들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찾아가 본다.

2. 광주의 문화정책과 현장

광주비엔날레에 대통령의 영부인을 초대했다는 뉴스가 아마 문화판에는 빅뉴스중 하나였을 터이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을 것이라는 누구나 예상은 가능하지만 나는 이를 통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판단했다. 국회와 청와대에 있을 때 강성으로 불리워졌던 시장의 태세전환 자체가 뉴스이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호감도 향상과 방문객 증대를 위해 부시장은 동영상 통해 홍보에 전념했던 것과 견주어 그러했다. 광주가 지닌 매력물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고군분투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 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지울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공연단체의 연극 공연에 사전 예고없이 시장께서 방문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의전은 말할 것도 없고, 수행원 하나없이, 덜렁 들어서서 공연을 끝까지 보고 배우와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스스럼없이 떠나는 모습에서 느꼈던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면이기도 했다.

하여튼 작금의 광주시 문화정책은 대외적으로 보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맞물려 진행되는 다양



광주문도협(재단 간사단체)이 주최한 민선8기 문화도시 발전 방안 모색 포럼(22. 7. 26.)

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특별하게 도드라진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지원을 받고 거기에 시비를 얹어서 집행해 나가며 아젠다도 이슈도 만들지 못하는 것, 대표적으로 아시아문화활성화거점 사업으로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운영과 같은 것이다. 매해 10억원여를 들여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거점 공간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고 새 대형 단체를 뽑고 새로이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다. 대안이 찾아져야 하는 일임에도 주무부서의 관행적인 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 재원이 시장 살리거나 거리 살리기로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본질은 “예술을 통해”인데 야시장이나 플라마켓이 본질인 것으로 착시하는 것 이런 부분부터 깊이 들여다 보며 조정하고 정확히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산하 조직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을 통폐합하는 이슈가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간 컨벤션센터는 엄청난 성장을 해 왔다. 관광의 볼모지 같은 광주에서 MICE

산업을 통해 수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졌고, 가동률이 높아서 제2의 공간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관광재단이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이나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용 만족도 면에서도 제고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지침과 권고 등의 영향요인도 있지만 광주형 모델들을 만들고 지켜나가면 될 것이며, 관광재단은 재단 본연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에 매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아트벙커” 사업의 경우 첫 시도되는 것으로 이번 민선8기의 주요한 시책이며 의미있는 일이라 여긴다. 문화중심도시에서 얘기한 “문화사랑방”의 개념이 이번 시정부를 통해 마을 곳곳에서 실현되는 모습이다. 민간위탁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민간 전문가의 생각과 시 정부의 생각 사이의 괴리들이 있을 것이지만 서로 잘 조율하면서 나간다면 생활밀착형 문화의 창제작과 향유 공간으로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민선 8기에 가장 기대를 갖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에 관한 논의나, 광주 군공항의 이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전북 이전 등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는 광주라는 대도시가 어떤 위상으로 타 지역과 협력하고 조화롭게 상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범과 같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하나가 녹록치 않은 과정이지만 위정자들의 대승적인 판단과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다. 광주는 광주대로의 실리를 챙겨야 하고, 전남은 전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각축의 장이 되었다. 광주가 대도시로 성장한 기반에는 인접 시군의 기대와 지지와 지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국토 전체를 보고 생각하고, 호남권이란 유전형질 자체를 두고 궁리할 때 광주는 여지껏 이들을 활용하는데 진력했을 뿐 그 고마움에 답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예컨대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갈등의 본질을 보면 서로 선호하는 연구가 다르다는 것, 즉, 지정학적 위치와 삶의 방식, 생산양식 등 사회구성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를 의뢰할 만한 연구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가 없다는 현실은 보지 않고, 제 욕심만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달을 바라봐야 하는데 가르키는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군공항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광주와 인접한 무안에 국제공항을 열고 서해안을 넘어 국제적인 교통망을 열었음에도 민간공항의 기능을 끝내 놓지 않으려는 것 자체부터가 과욕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군사공항의 기능을 전남으로 넘기기 위해 이렇듯 공력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광주와 전남이 협력해야 만이 지금의 부족한 광주 관광의 활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꾸만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물 안에서 폴짝거리는 이 현상 앞에서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싶어진다.

3. 나가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꿈꾸며 출발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다. 한편으로는 꿀잼도시를 향한 여정이 줄기차게 달구어져 왔음에도 허전한 것들은 여전히 상존한다.

예술가들이 존중 받는 도시이고, 방문자들이 환대 받는 도시로서의 일상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 탓이다. 지금 광주에서 시급한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광주발 세계를 향한 문화 아젠다의 발신지이자 수취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당을 토대로 광주는 부족하지만 수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새싹이 되어 더 확장된 많은 사업들을 만들고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안에만 매몰되면 그저 소모될 뿐이다. 이것이 갖는 가치와 효용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중심도시가 할 일이다. 타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시 정부와 사업 수행자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잠잠하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문화중심도시인 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민선8기의 막중한 책임은 바로 '문화중심도시 다움'이 무언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전고필 향토사전문책방 이목구심서 대표

예술로 밥 먹고 살기

‘예술생태계’란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생각했다. 생태계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어느 환경 안에서 생육하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체계”란다. 요즘 생태계 문제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개념은 생명 문제다. 그렇다면 예술생태계란 예술가가 먹고사는 문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다. 손과 뇌로 일하는 사람은 장인이다. 하지만 손과 뇌와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은 예술가다.” 루이스 나이지가 한 말이다.

예술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러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술가’라는 단어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괴짜, 날카로운 재능, 아우라, 가난, 보통 사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

는 사람, 경제 관념이 없는, 돈과는 거리가 먼... 돈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돈이 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예술가라는 천재성과 작품의 순수한 미적 가치만을 강조해왔던 것 같다. 예술도 직업군에 속해 있다. 예술가도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나부터도 그랬다. 예술인으로서 밥을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예술인인가? 맞다. 이 말에 어떤 사람들은 웃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인정해준 예술인등록증이 있으니 맞지 않는가? 예술가가 돈을 이야기하면 천박하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예술은 타락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한다. 예술 창작은 노동이다. 노동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선 8기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 예술인 삶은 어느 지점일까?

예술인 삶에서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문화예술은 그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고갱이다. 보편적이란 말에서 절대가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광역시라는 도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인권, 역사, 문화, 예술일 것이라고 자부한다. 광주 사람 스스로가 광주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나고 한다. 왜 보여줄 것이 없냐고 하면, 반문하며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을 부러워한다. 그곳은 첫째 풍광과 어우러진 부분이다. 광주광역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신이다. 역사 정신, 문화 정신, 예술 정신이다. 추상적인 허울 좋은 말일 수 있다.

그래서인가? 문화예술에서 관광에 총 집중하는 모양새다.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져오겠다고 한다.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성공 사례는 광주광역시도 그것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 광주다움이 없는 문화예술관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보다 더한 천박한 자본주의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벤치마킹이란 용어는 이음마당으로 우리말 사용을 하면 어떨지.

광주광역시라는 지역 문화예술이 담보되지 않은 관광은 빈껍데기가 될 뿐이다. 관광이란 그 지역 특색을 담아내는 것이다. 문학, 영상, 공연, 전통, 음악 등에서 광주문화예술을 담아내고 나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통해, 아시아로, 더 나가서 세계 보편적인 문화예술을 만들어내야 제대로 된 관광이 된다. 관광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례를 쌍둥이처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성공만을 보지 말고 몇십 년, 몇백 년, 후세대들이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다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다움을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 몫은 지역 예술인이다. 가장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선 8기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

리고 있다. 문화도시는 광주 지역 예술인을 통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줘야 한다.

어느 순간 예술이 창작활동이 아니라 취미활동쯤으로 변해간다.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작가라는 이름을 달고 예술계에 나타났다.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실생활 일부분이 되는 예술, 실생활에서 실용적인 가치와 기능을 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웅색한 변명이다.

광주광역시는 예술가에게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돈이 된다는 관광 쪽에 힘을 조금 빼길 바랄 뿐이다. 문화예술관광이라는 허울 좋은 옷을 입고서 말이다. 문화예술은 돈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때 주어지는 가치다. 광주지역 예술인은 그 만한 능력이 있다. 먹고사는 문제로 자꾸 광주광역시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술생태계가 자리 잡아갔으면 한다.

광주광역시는 예술가들 복지를 위해 “예술인권리 보장조례”를 만들었다. 예술가들이 자신 분야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당할 때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지나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예술인 또한 적극적으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문화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문화는 도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상징성과 경쟁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는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자랑하는 도시로서, 문화정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민선 8기의 문화정책에 대해 제가 느끼는 문제점과 아울러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1. 미흡한 예술 교육과 지원 시스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 교육과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는 예술적인 재능과 창의성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예술가들이 그들의 재능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가들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젊

은 예술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문화 콘텐츠 창작과 생산의 부족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창작과 생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전의 한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 환경과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 공간과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작품 개발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3. 산업 간 협력의 부재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간의 협력과 융합이 필요합니다. 광주는 문화 예술, 디자인, 출판 및 영상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간의 협력과 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창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문화 콘텐츠 창조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4. 국제 시장 개척과 홍보의 부족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 시장 개척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광주의 문화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수출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심지어는 국제적인 행사로 잘 알려진 광주 비엔날레마저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 시장 조사와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광주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문화 및 예술 행사에 광주의 예술가와 작품을 활발하게 참여시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홍보적인 시너지 뿐만 아니라 문화 시장 규모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수요를 증가 시키고 건강한 문화 콘텐츠 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5. 문화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합한 문화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광주는 예술 공간,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고려하여 문화 예술 행사뿐만 아니라 창작,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

마지막으로, 광주의 문화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 산업의 발전은 오랜 기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력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 교육과 지원 시스템의 개선, 문화 콘텐츠 창작과 생산의 활성화, 산업간 협력 강화, 국제 시장 개척과 홍보의 강화, 문화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을 통해 광주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성혁 광주청년센터 청년응원위원

도시와 건축, 제대로 가고 있나?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들의 정체성은 도시의 건축적 유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시의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의 적지 않은 부분이 건축물이다. 문화도시는 사람들의 상상과 노력의 결과물인 건축물과 시민들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스카이라인 관리와 창의적 건축을 위한 통합심의제도를 제외하면 공간과 건축과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지난 1년을 공약과 공약이행 정도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 현 시 정부의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시각과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1. 건축물 높이의 관리

지난 민선 7기에서 구도심의 난개발을 막고자 건축물 높이 관리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2021년 7월 시장은 층수제한 방침을 선언했다. 상업지역은 40층 이하, 주거지역은 30층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은 심의 시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제

한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23년 2월 광주광역시장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이었다. 이러한 획일적 층수 제한을 해지하고 지역 및 입지별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이라는 층수는 상당히 심리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건축물의 높이, 이와 관련된 용적률과 건폐율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광주의 도시공간과 미래의 경관에 합당한지는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 정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을 200%~240%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20%의 상향 조정으로 비칠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 상하향도 가능하겠지만 240%가 아니라 220%라는 한계 내에서도 경관관리는 가능하다. 이전 시 정부가 일정 층수를 높이의 한계로 설정한 이유는 이미 광주의 도시경관이 무너졌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고층아파트의 획일화된 형태가 아니라 우선 높이가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고층아

파트로 인해 시민들은 갑갑증을 호소하고 도시의 바람길이 막히고 열섬현상이 증가할 가능성도 예견되며 도시공간의 비효율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광주에 알맞은 건축물 높이 및 도시경관 관리와 관련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방직공장 부지 개발

전방과 일신방직으로 대표되는 방직업은 일제강점기부터 광주의 경제의 중추였고 아시아자동차(현 기아),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가장 큰 공장이었으며 전남과 광주의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일터였다. 한국에서 방직업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가동을 멈춘 전방과 일신방직과 그 부지는 사기업 소유이지만 광주의 상징이자 중요한 산업유산으로 공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다. 해외의 많은 방직공장은 그 외관을 유지한 채로 시민예술촌, 호텔, 쇼핑몰 등으로 리모델링되면서 도시재생의 이정표가 되었다.

방직공장 부지(29만6340㎡) 개발은 2018년 10월 주민들의 이전 청원, 2020년 7월 새로운 사업자에게 공장부지 매각, 2021년 12월 광주시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여분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3년 3월에는 방직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가 공개되었다. 조감도 상으로는 층수를 달리하는 고층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며 상업지역 용적률을 감안하면 40층은 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2월에는 광주시가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했기에 한 중앙 일간지에서는 공장 부지 개발과 규제 완화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기도 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만으로도 2020년 부지 매입가격(합계 약 6,850억)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한다. 용도변경이라는 행정행위만으로 토지 소유주 혹은 개발회사의 노력과 기여분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에

그러한 수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 이익은 방직공장의 입지를 만든 광주의 근대사, 시민들의 노동과 기억, 향후 시민들의 활용이 토지의 가치로 환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업자와의 협상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시 정부의 역할이 공공기여분의 정확한 계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직공장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고, 시민 및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여분의 창의적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설계 당선작은 개발부지 내 ‘15분 생활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층아파트 거주민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조성될 역사공원과 복합쇼핑몰을 대중교통과 도보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직공장 부지 개발은 민선 8기의 도시계획과 건축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건축물 높이 관리는 방직공장 부지에 조성될 고층의 주상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경쟁력 있는 도시 디자인과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관리를 위해 민선 8기는 방직공장 부지에 40층이 넘는 건축물을 허용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도심 최대의 부지 개발과 이러한 새로운 건축물은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광주도시건축 선언, 구도심 활성화 전략과 도시재생의 방향과 부합해야 할 것이다. ♪



박경섭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

민선 8기 1년, 문화협치에 대한 단상

우리는 현 시대를 말할 때 ‘문화국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국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분권의 시작은 문화분권이고 분권의 매듭 또한 문화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류가 없는 본류가 없듯이 지역문화가 없는 문화국가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류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관련 단체와 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등에 관심을 갖고 시책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광역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비전 아래 신경제도시, 꿀잼도시, 돌봄도시, 안심도시, 교육도시의 5대 목표 설정과 126개 공약과제, 173개 세부사업을 공약실천계획서에 담고 있다.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광주광역시는 민주성과 투명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와 관련된 꿀잼도시, 인권도시, 문화도시에 관련된 논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연 문화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1년에 즈음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왔는가?”하는 점검의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

기적 문화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전임자의 사업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기본전제 하에 새로운 사업의 시행,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을 본다면 민선8기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평가에 따라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충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에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요구되며,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아젠다(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둘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협치’라는 최상의 논의구조를 매개점으로 최상의 결과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원하되 지자체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원의 방식도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예술인 당사자



제2기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

와 지역민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즉 이들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협치를 통해서만이 창의적인 문화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치”라는 말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라는 것으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이 선행된다는 의미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포용·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 지원 △전통문화 콘텐츠 활성화(전통·전래·민속놀이, 전통예절, 전래동화 등) △지역문화 인력양성 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하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을 거스리는 정책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우리 광주광역시는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예술인과 지역민 등과 문화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의를 잘 진행해 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화협치를 위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네트워크 즉, 국제적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국내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관련 기관과 단체, 예술인,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 등과

의 문화협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해 왔는지, 그리고 공약에 포함된 목표달성을 위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시점이다.

필자가 평소 즐겨쓰는 말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단어이다. 협치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지만 그 추진과정은 언제나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문화는 하나의 살아있는 독립된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문화와 예술을 창작과 유통 그리고 향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이라는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문화예술을 생태계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며, 드러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문화’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



정진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민족’과 ‘진보’를 넘어 ‘공감’과 ‘실천’을 향해

이지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팀장

작은 놀이패로부터 시작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며 성장해온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이하 광주민예총)은 지금도 광주에서 크고 작은 문화 현안에 앞장서 대응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더 나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광주민예총을 이끌어갈 정찬일 신임이사장을 만났다.

이지호(이하 이) 많은 분들이 아실테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와 광주민예총에 대한 소개도 해주십시오. 초기 민예총은 7,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문예 단체들이 하나로 연합한 형태를 띠었는데 현재의 민예총의 정체성과 방향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민족’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정찬일(이하 정) 안녕하세요. 저는 16대 이사장을 맡게 된 정찬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민예총의 초기 역사와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민예총은 1987년 6·10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결성되었습니다. 민중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예술영역에서 통일된 조직의 필요성과 새로운 예술인 조직결성이 요구되었고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1988년 1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민예총이 공식 결성되었습니다. 민예총은 ‘민중과 확고히 결합된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중성은 무엇이고 운동성은 무엇이며 진정한 예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활동방향을 내세우고 창립선언문에서 ‘민족민주운동, 통일조국건설운동의 대의를 체현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음으로써 소수의 예술가만이 아니라 민중 전체가 보다 높은 예술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참 민중적 민족문화예술의 기틀을 건설해 낼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개인들의 연합체 기구를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르 운동조직으로 구성되었고 문인들의 조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예술행동

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작가회의), 민중미술운동 조직체인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 민중연희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민극협), 민족음악협의회(민음협)가 창립됨으로써 장르협의체 연합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초창기 민예총활동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에는 전국 광역시, 도 16개의 지역민예총과 소속지부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예총은 1994년 한국민예총 광주지부(초대 지회장: 문병란)로 창립하여 2014년 독자적인 사단 법인이 되었고 2019년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광주민미협, 광주 전남 작가회의, 극단 토박이, 내뱃소리 민족예술단, 빛고을 풍물두레물들꽃, 시소뮤지컬컴퍼니, 영상위원회, 오월음악,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놀이패 신명, 푸른솔시민합창단, 현대사진가협회, 한천굿사랑한사랑예술단, 춤추는 나무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예총은 각 단체별 활동과 5·18전야제, 오월음악제, 오월미술제, 오월문학제, 오월연극제 등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속 단체들의 결속과 예술역량을 발현시키는 광주민족예술제를 해마다 펼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와 상징들이 내포되어 있어 인터뷰로 짧게 이야기하기에는 힘들겠네요. 어떤 장르에서는 ‘민족’이라는 수식어를 빼기도 했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만 여전히 ‘민족’이라는 단어가 갖는 역사적, 예술적, 운동적 의미는 단체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흔히 민예총을 떠올릴 때 ‘민족’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진보’라는 단어도 수반되는데 예술단체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잣대나 정치적 성향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이란 것이 이념의 형상화인데 당연히 사상이나 이념이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도 있겠으나 작품 안에는 예술가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다양한 사상과 함의를 담고 있죠. 시대에 맞는 요구를 반영하며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다루는 내용 또한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에는 수용되고 용납되는 것을 보면 시대의 발전상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존재니까요.

이 결국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시대에 맞는 역사적 실천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민예총은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거대 예술단체의 한 축이기도 한데 그 책임과 역할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 그동안 정부와 문화 권력에 맞서 시민의 편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예술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열,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블랙리스트 선정으로 예술창작활동에 제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참사 속에서 예술 활동은 중지되고 침묵과 애도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어떤 특정사안이나 상황에서 예술은 너무 쉽게 포기되고 배제되었습니다.

예술의 자리를 돌려놓고, 예술가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도 현재 광주에서는 올해 국에서 처음으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예술인의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가 및 민관 협치를 통해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대활동도 꾸준히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 개개인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예술가들을 위한 자유, 인권, 권리를 위한 활동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대책위에도 함께하고 계시죠? 최근 대통령이 한 나라의 역사를 개인의 문제처럼 외교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5·18을 일부 단체가 본인들의 사적인 일인듯 왜소화 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적 영역의 사유화에 따른 문제라고 진단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특정 사업에 관해 이런 일들이 있다고 들리곤 합니다.

정 일이라는게 오래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관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아집과 편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5·18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노고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로 특정 예술가나 집단들의 이익에 부합해서는 안되지요.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장하지만 새롭고 젊은 예술가들이 유입이 되어 세대교체가 되고 다양한 시각의 예술활동



2023 예술만장전

이 이어질 때 지역의 예술 또한 발전될 거라 생각합니다. 늘 자기 객관화를 시키고 공동의 선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강의 앞 물은 뒷물에 의해 밀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까지 창 의 지면을 통해 꾸준히 민족예술에 힘써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요. 여러모로 굉장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비해 다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민족예술의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좋은 작품들이 탄생할 입지 기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만한 돌파구가 있을까요?

정 민족예술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한 때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현재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사람들과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롭지만 무거운 내용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변



2022 광주민족예술제

했다기보다 아무래도 민족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매체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영상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예술품은 여전히 생명력있게 장기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것,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발굴하는 것, 또 무엇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작년에 개최된 22년 민족예술제는 지구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세대나 이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기 좋은 주제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것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인들이 각성하고 예술창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날이 심해지는 환경파괴를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5·18민주광장에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시민들을 만났고 큰 공감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위기와 바다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나서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미래 세대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사장으로 첫 부임한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도 묻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정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결속을 위한 조직 강화활동, 장르별 활동을 추동하며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대안을 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원들과의 역량강화 워크숍, 외부전문가 초청 조직 활동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새롭고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시도해보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광주민예총이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상설 공연과 전시, 예술가들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마련도 모색 중입니다.

이 광주민예총의 3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민예총이 지역 문화 발전과 함께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내 음악을 해야겠다”

몇 해 전 포털사이트에 인물 정보를 등록하려는데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에 마땅한 것이 없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의 일을 몇 안 되는 단어 중에서 골라야 한다니,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국악인? 맞지만 국악이라는 장르로 한정 짓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해금연주가? 네. 해금 연주를 하고 있죠. 예술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곤 제 이름 앞에 붙이기에 조금 거창한 듯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정체성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제게 던진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너의 직업은 뭐니?’라는 질문이 ‘내 음악을 하고 싶다’, ‘내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앞만 향해 달리고 있던 제게 꼭 필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뭘 선택했느냐고요? 해금연주가입니다. 조금 소심하게 포털사이트와 타협을 본 셈입니다만 독자분들께는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싶네요. 해금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해금예술가 김단비’라고요.





〈해금에세이; 피어나다〉와 〈해금에세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음악

연주 활동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의 저는 경험할 수 있는 것,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일단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무장된 상태였거든요. 음악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좋으니 이것저것 해보며 가장 좋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체험판 진로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연주 활동도 그 중의 하나였죠.

그렇게 시작한 해금 연주, 공연, 무대는 너무나 즐거웠고, 거듭할수록 더욱 좋아했습니다. 계속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단체에서 해금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뜻 맞는 동료들과 팀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즐거웠고 제가 해금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고 경험한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내 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건

그 시간을 지나오며 나도 모르게 가졌던 뜨뜻미지근하고 지난한 고민에 내린 저 나름의 답이었습니다. 이 바닥의 생리를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보았고, 10년, 20년 뒤에 내가 서고 싶은 자리를 상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좋은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힌트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었죠.

내 음악을 하자. 내가 만들고 내가 연주하고 나의 흔적과 냄새가 잔뜩 묻은 내 음악을 하자.

〈해금에세이〉

〈해금에세이〉는 그 고민과 결심 끝에 태어난 저의 음반 표제입니다. 2020년 발표한 첫 번째 정규음반 〈해금에세이; 피어나다〉와 2023년 두 번째 정규음반 〈해금에세이; 마음이 향하는 곳〉. 두 번째 음반을 세상에 내놓으면서는 감히 저의 시그니처 음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더랬죠. 내 곡을 직접 짓고 나의 이야기를 담고 그림으로 그려낸 나의 〈해금에세이〉, ‘김단비’의 〈해금에세이〉.

아파트 앞, 뒷동에 살며 정이 많이 쌓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 담은 ‘추억의 온도’, 공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반려견 가짤이의 이야기를 담은 ‘공이 좋아요’, 갈등에 대한 생각을 담은 ‘풀이’, 모래 깔린 놀이터에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던 이야기를 담은 ‘놀이터 요리사’. 다 만들어놓고 보니 더 더욱 〈해금에세이〉 말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찰떡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누가 어떤 악기로 어떤 리듬과 분위기로 연주하여 어떤 느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음악보다 한 편의 에세이가 있는 음악이 훨씬 매력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나요?

곡을 쓰는 것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절대 훌륭한 솜씨는 아닙니다.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얇은 재주일 뿐이지만 ‘내 음악을 해야겠다’는 강렬한 욕망 앞에 무기로서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고 도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나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었기에 내 음반이, 내 음악이 더 특별하고 빛났으면 하는 바람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음반이 준 선물

당연하게도 음반을 발표한 뒤로 저의 음악 활동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결이 다른 일과 기회들이 생겨났죠. 종종 라디오와 TV에서 제 음악이 흘러나왔고, 어느 팀의 김단비가 아닌 개인 김단비로 인터뷰나 공연, 방송 출연 기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외교부가 주최하는 제법 크고 중요한 학술포럼에 초대받아 홀로 다녀왔으니 음반 발표 전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임이 확실했죠.

그중 가장 선물 같았던 기회는 작년에 참여했던 <2022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이었습니다. 음반을 발표한 유통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고 총 12번의 내한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는 2011년부터 매년 전석 매진으로 내한공연을 성공리에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재즈트리오 팀입니다. 그런 팀의 내한공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세종문화회관, 부산 영화의전당, 성남아트센터 등 국내의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모두 쉽게 오지 않을 멋진 기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꿈 같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금에세이>, 저의 음반이 만들어준 기회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내 음악을 해야겠다'는 몇 해 전의 제가 찾은 답이 꽤 괜찮은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가 아닌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니까요.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만의 것, 자신만의 표현,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나만이 할 수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공연

있는 것, 내가 해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그것들을 찾고 표현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고유한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고 선물 같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



김단비 해금예술가

텡그리와 부르한 2

최남선이나 신용하의 주장을 들어보기 전에 텡그리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텡그리 신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북방 유목민족들에게는 3개의 위대한 대서사시가 있는데, 티벳과 몽골의 『게세르』, 키르기스의 『마나스』, 칼믹-오이라트의 『장가르』가 그것이다. 칼믹-오이라트의 『장가르』는 3권으로 번역되어 있고, 키르기스의 『마나스』도 번역되어 있다. 매우 빈약하기는 하나 2023년 5월 1일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지금도 ‘마나스’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다. 『게세르』는 판본이 3가지나 된다는데, 몽골의 『게세르』와 부리아트의 『게세르』 모두 번역되어 있다.

이 서사시들은 음유시인들을 통해 구전되어 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판소리처럼 음유시인들을 통해 들어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 가면 음유시인들이 ‘마나스’를 구음으로 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대 서사시 가운데 ‘게세르’ 신화 특히 ‘부리아트 게세르 신화’는 텡그리 신들의 이야기로 꼭 차있다. 티베트 지역에서 채록된 『링 게세르』는 세속 ‘영웅’ 서사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1717년에 베이징에서 나온 『게세르』는 ‘무속’ 영웅서사시와 역사적 사건의 복합



게세르 동상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부리아트의 『게세르신화』는 순수한 ‘샤머니즘’ 신화의 열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리아트의 『게세르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텡그리 신들의 이야기를 약간 살펴보고 한다.

텡그리는 하늘이고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샤먼을 일컬었다. 그런데 부리아트의 『바이칼의 게세르신화』에서는 텡그리가 아예 ‘하늘신’을 호칭하고 있다. ‘하늘’이나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신들’을 텡그리라 부르고 있다는 말이다.

부리아트에서 하느님은 ‘후헤 문헤 텡그리’라 부르



는데, ‘영원한 푸른 하늘’이란 뜻이라고 한다. 후해 문해 텡그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에세게 말라안 텡그리’가 여러 텡그리에게 그의 뜻을 중개한다. 에세게 말라안 아래에 하늘세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텡그리가 거주한다. 그러나 남북의 신들은 지상세계에 관심이 없다. 오직 동서의 텡그리들이 지상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쪽 하늘에는 쉰다섯의 텡그리가 살고 동쪽에는 마흔네의 텡그리가 사는데, 서쪽 신들은 선신이나 동쪽 신들은 악신으로 여겨진다. 모두 아흔아홉의 텡그리인데 여기에는 3의 배수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방민족은 신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3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실하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에 의하면 농경민족인 중국이 2수분화의 문화 원리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북방민족은 3수분

화의 문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주역에서 음양, 사상, 팔괘 등이 모두 2수가 분화한 것이라면, 텡그리의 숫자가 99인 것은 3수가 분화한 것이 되겠다. 우리나라 역시 3수분화의 영향이 강하여 3을 중시하고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합을 해도 ‘삼세판’을 하고 침을 뱉어도 ‘뽕뽕’ 세 번 뱉고 무얼 털어도 ‘탈탈탈’ 세 번 툰다는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나라가 위협에 처하면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곤 하였다. 종묘는 왕들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고 사직은 농사신을 모시는 곳이다. 북방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상숭배가 매우 중요했던가 보다. 따라서 조상을 모시는 장소는 매우 신성시되었다. 그러나 농경민족은 농사신이 훨씬 중요했다고 한다. 중국은 농경민족이 숭배하는 사직과 북방민



몽골 게세르 축제

족이 천손족의 징표로 모시는 조상신을 통합하여 종교와 사직을 만들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2수분화와 3수분화의 문화 원리를 통합하여 ‘음양오행설’을 만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다. 2수분화를 중심으로 하여 ‘음양’이 있고, ‘오행’은 2수분화와 3수분화의 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게세르 신화로 돌아가서, 서쪽은 ‘한 히르마스 텡그리’를 수장으로 하고 동쪽은 ‘아타이 울란 텡그리’를 우두머리로 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결국 하늘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패배한 동쪽 하늘신들이 지상으로 던져진다. 특히 동쪽 텡그리들의 우두머리인 ‘아타이 울란 텡그리’의 사지가 분할되어 지상에 떨어진 다음, 지상을 괴롭히는 마법사들로 환생하여 인간들을 괴롭힌다.

인간세상이 마법사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자 하늘세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하늘신의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 보낸다. 한 히르마스 텡그리의 둘째 아들인 ‘벨리그테’는 지상의 하탄 땅으로 내려와, 센겔렌과 나란 고향 사이에서 인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지상에서 ‘게세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하늘신 벨리그테는 하늘 용사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사악한 마법사들을 응징하고 지상과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복원하는 길고긴 원정길에 오른다. 부리아트의 게세르신화 줄거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 보았는데, 부리아트의 게세르 신화를 직접 읽어보면 말할 수 없이

역동적이고 숨 막히는 긴장감을 일으키는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게세르신화’는 ‘단군신화’와 짜임새가 비슷해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단군신화가 매우 단편적인데 비해 게세르신화는 실로 장대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대서사시다.

부리아트 게세르 신화의 도입부와 단군 신화의 열개 비교

	게세르 신화	단군 신화
프롤로그	하늘세계 신들의 회의, 지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하늘신 히르마스가 둘째 아들인 게세르의 지상 강림을 결의	하늘세계 신들의 회의,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신 환인이 서자인 환웅의 지상 강림을 결의
제1부	게세르의 지상 강림, 지상에서의 전투, 인본주의와 조화 이념 실현	환웅의 지상 강림, 신시 건설과 지상의 악들을 제거, 홍익인간 재세이화 이념 실현
제2부	게세르의 결혼과 아들 탄생, 악한 무리들과의 전투, 지상의 악을 멸하고 제국을 건설	환웅과 웅녀의 결합으로 단군의 탄생, 아사달을 도읍으로 지상제국 조선을 건설
제3부	제국의 확산과정, 자손들과 승리의 주역들이 동서남북으로 확산되어 제국을 확장	제국의 소멸과정, 외적의 침입으로 단군이 장당경에 들어가 산신이 된다.

게세르신화와 단군신화의 열개를 보면, 우선 하늘세계 신들이 회의를 통해 하늘신의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 보내기로 결의한다. 환웅은 하늘신 환인의 서자인데 게세르는 하늘신 히르마스의 둘째 아들이다. 또한 게세르나 환웅이 모두 인본주의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한다. 게다가 게세르나 환웅은 모두 지상에 내려와 결혼을 한 후 아들을 낳으며, 자손들이 나라를 확산시키거나 제국의 소멸을 맞이한다. 실로 이야기 열개가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김상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건축자산과 근대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생성시대에 관계없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오랜 기간 잘 보존된 유물과 유적들은 각 시대의 생활양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에 역사의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역사는 중층구조의 성격을 지닌다. 먼 과거의 유산이 문화재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다양한 종류의 지정문화재로 선택받아 적절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는 반면, 가까운 과거의 유산은 충분한 가치평가를 받기 이전에 송두리째 철거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기로 대표되는 가까운 과거는 도시와 복합 관계 속에서 자라난 문화유산인 까닭에 개발논리로 사라지는 것이 어찌면 순리일지도 모른다.

최근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는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 등록문화재’의 분리이다. 더불어 근대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들은 지정 및 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서열화를 없애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성시대에 관계없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아직 단 한 건의 ‘시·도등록문화재’도 등록되지 않았다. 제도 개편의

미비로 인해 당장 시·도 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0년대 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등록문화재 등록 건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활용에 대한 비중이 큰 등록문화재 일지라도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재 행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2년부터 ‘근대건축물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교육, 종교, 산업, 주거 시설 등 총 9개 분야 100여 곳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목록화와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들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지정문화재로 10여 건이 지정되었고, 국가등록문화재로 10여 건이 등록되었지만, 대부분의 잠재적 근대문화유산은 간단한 기록만 남기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조흥은행 총장지점, 뉴계림극장, 현대극장, 양동초등학교 급식실 등 우리의 추억이 서린 곳들 중 많은 곳이 이미 사라졌다.

반면에 철거 위기에 몰렸던 근대건축이 리모델링 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 당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가 예정된 동명동



동구 인문학당 © 광주 동구

의 한 근대가옥은 그 가치를 알아본 건축학자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존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인문시설로 조성되었다. 남광주시장 안에 있는 철도관사도 보존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의를 구성하여 복원에 필요한 구조안전, 보강설계, 효율적인 공간사용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된 후에 복원되어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빈집조사를 실시 후 가치판단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훌륭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건축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수건축자산(등록건축자산) 제도 등으로 활용의 가치에 중점을 둔 진흥개념의 지원제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이나 기반시설 정비 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도 적용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보다

활용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다.

건축자산은 한옥 등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는 제외된다. 건축자산은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간환경(「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 해당된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요건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위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우선된다.

가치기준 중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과 용도와 외관이 한국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경관적 가치’는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적 가치’는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으로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등이다. 더 나아가서는 저명한 건축설계기술자 등과 관련되었거나 공인된 시상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도 포함된다. ‘사회문화적 가치’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



남평주역 옛 철도 관사를 복원하여 만든 학동 마을사랑채 © 광주 동구

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그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하지만 건축자산은 명칭에 ‘자산(asset)’이 포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이다. 문화재와 유사한 가치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기준에 포함하고, 건축자산의 경제적 활용을 적극 장려한다. 문화재가 대상물을 보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면, 건축자산은 대상물의 경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것이다. 또 건축자산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예비문화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것을 심사대상으로 삼지만, 건축자산은 특별한 연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상을 받은 건축 작품은 건축자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전 근대시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가리

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갖는 건축물이라면 모두 건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당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며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를 일상 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채 적절히 보존 및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와 최근의 이슈인 ‘건축자산’ 제도는 미래의 문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근대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정당한 가치부여를 통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신용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수리기술전문위원

복합쇼핑몰,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

복합쇼핑몰 문제는 지금 광주의 뜨거운 의제 중 하나이다. 복합 쇼핑몰 문제가 왜 이토록 뜨거운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사실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복합 쇼핑몰은 필요할 수 있다. 또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은 광주 공동체의 삶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다. 복합쇼핑몰이 없으면, 광주시의 품격도 도시다움도 시민들이 향유할 문화도, 미래도 없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과장된 논리이다. 이는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눈감게 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될 수도 있다. 합리적 의견 개선 그 자체를 좌악시하는 듯한 폭력성, '무지성의 열망'과 같은 현상까지 낳고 있는 이 상황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필자가 우선 주목하는 문제는 정보 불균형에 따른 왜곡과 민주적 의사소통의 결여이다. 정보 왜곡과 소통의 비민주성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를 낳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화 시도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과장된 논리와 감정에 기초한 무지성의 열망을 자라나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복합쇼핑몰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 선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힘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하기 전에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급 숙박 시설과 연계한 복합쇼핑몰은 이미 민선 7기 때, 전·일방 부지의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광주시와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논의를 통해, 전·일방 개발의 중요 방향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던 사안이다. 단, 시민사회는 근대적 문화·역사 유산의 보존과 자원화,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공적 이익 강화 등을 분명히 하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런 사실은 국민의 힘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화하기 전에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복합쇼핑몰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보여준다.

민선 6기 시절의 복합쇼핑몰 논의 때로 옮겨가 보더라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무조건 복합쇼핑몰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혼잡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찾는 데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요구를 복합쇼핑몰 반대를 위한 논리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무한

정의 자유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이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이를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이 사업이 무산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감추어진 채 시민단체들은 무조건적으로 복합쇼핑몰을 반대한다는 것처럼 프레임화되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근거가 부족한 거짓 정보 중의 하나가 복합쇼핑몰의 유치에 따른 효과에 관한 것이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신세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추진 계획에서 모두 3만 5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과장된 논리인가는 대전 신세계의 사례를 통해 반증되고 있다. 2021년 개장한 대전 신세계는 실시협약 당시 1만8000명의 고용 창출을 장담했지만, 협력사 등의 고용 창출 인력까지 모두 합해 약 4,000명의 고용에 그쳤다. 이 4,000명의 고용도 신규 창출 인력보다는 기존 매장에서 건너온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순 고용 인원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이 시기 대전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고, 늘어난 부분의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 영역과 과학기술 제조업 분야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크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복합쇼핑몰이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복합쇼핑몰의 무조건적 유치를 주장하는 중요 논거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의 사례를 보면, 복합쇼핑몰이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마치 복합쇼핑몰이 지역 발전을 이루

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구는 태도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적인 정보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복합쇼핑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광주시와 무조건적인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장하는 일각의 시민들은 상권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복합쇼핑몰을 막기 위한 전술로 매도하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을 때쓰기로 몰아간다. 오히려 사실적인 정보에 기초해 문제를 판단할 것을 거부하고 때쓰기를 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나 무조건적인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장하는 일각의 시민들이다.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행동이다.

과장된 논리와 감정에 기초한 무지성의 열망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가로막는다.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일방적 손해를 강요한다. 이는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야만의 모습이다. 이 점에서 복합쇼핑몰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재의 광주공동체가 혹 비인간적인 야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무등산(無等山)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3월 4일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 째 되는 날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3월 4일 국내에서 21번째로 지정되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염원이 있었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난 10년간 무등산은 다양한 변화들을 겪어 왔다. 우선 무등산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관리주체가 되어 무등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탐방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연간 탐방객 3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탐방객 수는 엔데믹 이후 다시 상승세다. 무등산을 찾는 발걸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야생동식물의 개체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무등산에는 동물 1,699종, 식물 1,729종, 균류 포함 기타 680종 등 총 4,108종이 서식하고 있다. 동물의 경우 포유류 31종, 조류 13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16종, 어류 29종,

곤충 1,477종이 살고 있어 생물자원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곳에 깃들여 살아가는 못 생명들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많은 사유지들을 공유화시키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0년간 예산 267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830만㎡를 매입했다. 이에 전체 사유지 비율은 2013년 75%에서 2022년 64%로 11% 감소했다. 그로 인해 무등산국립공원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거주 주택을 비롯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훼손된 땅을 복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흐름을 마냥 좋아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무등산을 찾는 이가 많아지는 건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탐방객들이 무등산을 찾을 때 주 탐방로인 증심사 주변으로 70% 이상 몰려들면서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무등산 옛길이나 둘레길, 그리고 탐방로 다각화를 통해 무등산의 생태계를 잘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되면 무등산은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더욱 증가할 터이고 그로 인해 살아있는 자연의 보고가 될 것이다.

또한 사유지를 공유화해 보다 나은 정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또한 역시 체계적인 보존계획과 관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등산 신앙과 크호텔 공유화도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무등산 3대 현안은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 원효사 인근집단지설지구 이전, 그리고 방송송신탐 정비 등이 있다.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은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이전절차를 밟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이 마무리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 무등산 정상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정상부 상시 개방의 로드맵도 가지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서석대에서 인왕봉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부대 옆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데크길을 조성해 9월경 상시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정상부 군부대 이전 및 무등산 정상부 지형과 생태계 복원은 물론 군사도로 복원까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상부 관리 방안과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효사 인근 집단지설지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원효사 주변 집단지구시설들이 정비되면 다시 옛 모습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다. 방송송신탐 이전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장봉재, 중봉 등에 산재해 있는 방송송신탐도 한 곳으로 이전해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현안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명산인 무등산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에 따른 영향으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년, 여전히 '개발과 이용'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서석대, 입석대 주상절리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는 주로 정치인들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호출하고 있다. 그 논리 속에 교묘히 노약자나 장애인을 슬며시 끼워 넣는다. 물론 일부 시민들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의견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케이블카 설치 운운에 앞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등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다. 우리 인간이 주인일까. 아니다. 주상절리와 그곳에 깃들어서 살아가는 야생동식물과 유형무형의 문화재 등이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그곳에 깃들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 일 뿐이다. 무등산뿐 아니라 자연을 대할 때 우리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공생의 삶에서부터 살펴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삶의 길이 보인다.

이 세상은 인드라마의 구슬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 야생동식물, 문화재, 나무와 흙과 돌, 들꽃과 풀이 없으면 우리들도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고작 100년 남짓 살아갈 인간 중심의 편리성이나 이용논리를 앞세워 개발의 우를 범한다면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그 과보가 미칠 땐 손을 쓰기에 이미 때는 늦다.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속성이 더해져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옥죄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획실장, 국립공원무등산지킴이시민연대 운영위원장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이 인문예술축제에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만납니다.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지성인들이 광장에 모여 대화하고 시민과 토론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면서 광주시민과 함께합니다. 광장 민주주의 축제의 장입니다.

광주는 민주광장 소유도시입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광장에 모여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며 횃불을 들었던 광주시민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 이 민주광장은 광주의 자부심입니다.

지난해 심각한 한국언론의 문제를 주제로 지성인을 모셨고, 올해는 정권 1년 만에 검찰 독재의 독주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지켜보며 ‘제3회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의 주제를 ‘다시 민주주의’로 정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늘 현재 진행형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지성 수준이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인문예술축제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민주광장에 모여 그 분야 대표적인 지성인을 모시고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며 집단지성의 힘을 키우는 무대입니다. 민주광장에서 횃불을 들고 군부독재에 맞섰던 1980년 오월정신을 현재에 살아있게 하는 일입니다.



2023 세지광 포스터

올해 모실 지성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전남대 5·18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화제의 책 『빌리브란트와 김대중』(2020)을 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영태 교수와 KBS시사직격 진행자로 현 정부의 역사 인식과 외교에 일침을 가하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적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축제는 오후 6시 반 ‘민주 한마당’으로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심장에 공명을 일으키는 ‘얼쭈’와 굿패마루, 전통연희놀이연구소가 “부활하라! 민주, 일어서라! 정의”라는 주제로 마당을 열고 시민과 하나가 됩니다.

7시부터 최영태 교수, 임재성 변호사 두 지성인을 모시고 대화하는 ‘광주정신 토크쇼’ - “응답하라, 민주주의”가 한 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처럼 진행됩니다. 올해는 문형식 디제이가 토크쇼 사이사이에 감성적인 LP음악과 80년대 대중음악으로 소통합니다.

광주정신 토크쇼가 끝나면 치유의 춤꾼 최보결과 커뮤니티 춤 그룹이 오월어머니들이 그린 수십 점의 그림들과 교감하며 오월어머니들과 ‘대동의 춤’ - “평화를 춤추다”로 이어집니다. 그 춤은 광장에 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추는 대동의 춤입니다. 대동의 춤에 이어 작곡가 승지나와 앙코르 챔버오케스트라 멤버의 음악공연, “오월의 노래”와 나은영의 현대무용이 이어집니다.

오후 6시부터 늦은 밤 10시까지 광장 바닥에 흰 천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는 ‘오월정신 릴레이 드로잉’은 김봉준, 한희원, 홍성담 등 화가들과 전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현장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50인의 전문 미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작가로 참여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미리 신청한 12팀의 시민작가들과 50인의 전문 작가들이 “다시 민주주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풍자하며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과 결과를 민주광장에서 공유합니다.

광주정신의 자부심으로 시작한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인문예술축제는 대동세상을 열었던 1980년 10일간의 광주항쟁과 마지막 날 도청을 지킨 시민군의 피와 눈물을 기억합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승리한 광주정신을 현재 살아있게 하는 민주광장 축제에 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



주최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총감독

“몽(夢) 클래스…” 야생의 새를 꿈꾸며

‘카페 필로소피아’는 1996년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영원하며’라는 깃발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철학 공부 공간으로 출발하여 그 영역을 인문학 일반으로까지 넓히면서 균형과 깊이가 있는 성숙한 중년의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카페 필로소피아’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 철학반 “몽 클래스” 나는 “몽 클래스” 창가에 문득 야생을 날아온 한 마리 새처럼 깃바퀴를 쫓듯 대고 앉았다.

‘카페 필로소피아’의 모델은 지도교수를 맡고 계신 성진기 교수(전남대 철학과 명예 교수)가 1980년대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 처음 봤던 프랑크푸르트의 철학카페 ‘덴크바’(Denkbar)였다고 한다. 독일어 ‘덴크’(Denk)는 영어 ‘Think’(생각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이다. 성 교수는 ‘카페 필로소피아’가 단순히 철학 등 인문학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담론장(談論場)을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대학을 은퇴한 후에도 여러 곳에서 강의와 인문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나는 “몽 클래스”의 창가에서 올해 초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회원들과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전반부를 읽고 들었다. 비유와 상징, 페리디가 가득한 이 책은 우선 니체의 생애사를 이해해야 접근이 쉬웠겠지만 그렇지 못한 내겐 조금 불편함도 있었다. 독수리와 뱀,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 그리고 위버멘쉬와 영원회귀, 내리막길과 환희와 열정 또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듯이 알아갔다.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이 꿈이다’는 이성복 시인의 시구가 떠오른다. 낡은 가치를 부순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창가에서 지혜의 물 한 모금 머금었다 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야생의 새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니체의 책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물론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혹과 혼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인생이란 느끼는 자에겐 비극이고 생각하는 자에겐 희극이라지 않던가.

“몽 클래스”의 성진기 교수는 일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문도시 광주’를 꿈꾸며 일명 ‘휴머니즘 마피아’와 ‘광주의 메디치가(家)’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소한 개념인 ‘휴머니즘 마피아’는 ‘인문학적 소양으로 푹푹 몽친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광주를 이끌어갈 정신적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앞으로 중년을 위한 ‘진짜 찬란한’ 커리큘럼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밝힌 적 있다. ‘니체 읽는 할머니’도 철학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통해 카페 필로소피아의 인문학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니체의 책을 읽으며 미국의 여류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를 생각했다. 그녀의 시에도 생명과 치유의 니체사상이 들어 있다.

착하지 않아도 돼./참회하며 드넓은 사막을/
무릎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그저 너의 몸이라
는 여린 동물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하면 돼./
너의 절망을 말해 봐, 그럼 나의 절망도 말해주
지./그러는 사이에도 세상은 돌아가지……

메리 올리버의 대표시 「기러기」의 앞부분이다. 이 시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했다. 2009년 당시 미국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은 9·11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서 이 시를 낭송했다. 많은 미국 대학 기숙사에도 이 시가 걸려 있다고 한다. 올리버는 그들에게 그저 “몸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하라”고 말한다. 몸은 인간에게 가장 일차적인 존재다.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돼 있다면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실체다. 마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몸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

런 몸이 원하는 대로 놓아두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절망을 나누자고 권유한다. 니체의 책에도 대지와 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차라투스트라>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호수’처럼 올리버 시인도 시골마을에 살며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걷고 우주의 절대 진리인 자연 속에서 경이로움과 황홀이 담긴 많은 서정시를 썼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인생의 오후엔 진정한 ‘나’를 찾아 온전히 내 앞에 마주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이 지긋한 거장들이 만드는 풍경, 그것은 또 다른 자연이다. 내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아직 야생으로 날아가지 않고 “몽 클래스”의 창가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



김정희 시인, 본지 편집위원

광주 청년이 느끼는 지방의 문화 접근성

서울에서 살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 받은 일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시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시내가 뭐지?”라고 반응을 보였었다. 울산의 내 동창은 시내에 대해서 ‘핫 플레이스(hot place)’라고 말했었고, 광주의 친구들은 모든 만남은 시내에서 가지고 ‘용봉동 시내, 상무지구쪽 시내, 금남로 시내 등 여러 개의 시내가 있다’고 말했었다. 많이 웃기면서도 슬펐던 대목은 “서울은 시내가 따로 없다. 발 밑이 시내야”라는 말이었다.

‘문화’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봤다. 대한민국 문화 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도 문화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 갑자기 생각났다. 서울로 대학을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익숙함을 중시하는 나로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광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 라고 궁금해하는 나의 질문에 친구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것 같아서, 그리고 취업하는데 있어서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인적자원과 물리적인 인프라가 더 많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등 모두가 생각하는 바들이 비슷했지만 그 중에서 내 기억에 남는 친구의 대답이 있었다. “우리가 계속 광주에 있을 수만은 없잖니. 도시도 좀 가보고 그리고 우리도 정식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인이 되어야하지 않겠니?” 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광주에서도 시내는 문화생활 누릴 곳이 많고, 문화 공연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경험한 것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친구가 말했던 ‘정식적인 문화생활’이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었다.

수도권은 ‘지방 청년을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은 전체 대한민국 땅 크기에서 1/5도 안 되는 크기이지만 나와 같은 전체 청년의 약

54%가 수도권에 몰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충격이긴 했다. 청년의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로 표현된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원래 수도권 거주 인구 자체도 많지만,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이들도 20대 이후부터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도권은 청년들이라면 꼭 가야만 하는 도시가 되었고, 거주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경험하고 방문해야 할 ‘트렌드의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이 지방 청년들이 향할 수밖에 없는 ‘기회의 땅’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라면 가야 할 ‘문화의 성지’라는 이미지는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약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었다. 내 기억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사회 현상들을 알려주는 신문이나 책들을 찾아보니 전문가들 또한 지방 청년들을 흡수하는 수도권의 블랙홀 위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라고 말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IT, 문화 예술 등의 직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넘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낙오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문화다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지방 청년들이 서울을 향한 막연한 열망에 따른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는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문화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요한 한국 문화 중 하나로 형성된 K-POP 문화만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가려면 광주와 같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가야하고,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보려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는 KTX를 끊어야 하는 현실이다. 물론 광주 또한 현재 많은 문화, 예술 공연, 전시회를 개최하고 문화도시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와 친구들이 전시회를 가서 사진을 찍고 축제도 즐기고 10여 년 전에 비해서 발전된 광주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관심을 들만한 콘서트나 뮤지컬, 심지어 해외의 유명한 뮤지션들이 내한하는 공연에서도 지방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사례는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물다. 대학교 축제에서도 수도권 대학교와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초청되고 실제로 오는 뮤지션들도 다르며 그냥 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유명한 뮤지션들이 지방에 오게 하려면 초청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지방 청년들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하는 현실을 나는 몇 번 경험하게 되었다.

“서울에 내가 가서 명소도 여러 곳을 다녀보고 전시회도 갔었는데 막상 가서 놀다보니까 서울 별거 없던데요?”라고 말하면서 서울의 문화생활을 직접 경험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친한 동생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서울을 또 가고 싶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만큼은 서울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나에게 습관처럼 말한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이 청년들이 가야 할 ‘청년 문화생활의 성지’로 굳히게 되었고, 왜 지방은 ‘문화의 성지’로 불리지 못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



현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 인턴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자기 자리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제 자리지.
하기야 뭐
자기 자리 못찾고
헤매는 게 어디 이 뿐일까? SM
김옥열_ 사진작가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열두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고즈넉함 가득 품은 강진의 풍류를 찾아서'



지난 4월 29일(토)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즈넉함 가득 품은 강진의 풍류를 찾아서'란 주제로 열 두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이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의 역사와 발자취를 따라 걷고 영광 생가 및 시문화파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국 서정시를 이끈 시인의 문학 정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백수인 시인의 감칠만 나는 해설과 강진의 멋진 풍광이 어우러져 참가자의 큰 호평을 받았다. 12회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만남을 통해서,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 조성 및 세대와 계층간의 문화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재단이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2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군산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



광주 근현대 역사와 기억을 통해 알아보는 12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어제 군산 문화 문화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좌는 '그 때 그 시절, 광주 어릴적 기억을 마주하다'를 주제로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2회 열린 강좌와 문화탐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이한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지난 2011년부터 기호, 질병, 음식, 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깊이 있는 강좌와 문화탐방을 병행하는 우리 재단의 대표적인 시민문화강좌 프로그램이다.

• 조직

2023 세지광 및 광주음성 단행본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



2023 세지광 및 광주음성 단행본 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월) 재단 사무실과 한겨레식당에서 열렸다. 2023년 세지광은 오는 6월 10일 5·18 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① 광주정신 토크쇼 ② 민주한마당 ③ 대동의 춤 ④ 오월정신릴레이 드로잉 등 4개 마당으로 구성된 시민과 함께 하는 융복합 공연예술 축제이다. 또한 광주음성 단행본 발간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재단이 자료 조사 및 연구하고 있는 광주역사문화자원 가운데 '광주음성'을 중심으로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심포지엄도 병행할 계획이다. 두 사업 감독 및 책임연구원 사업 소개와 각 분야 자문 순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자문위원들은 동 사업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높이 평가하고 사업의 완성도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단이 보다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추진하길 당부했다.

2차 후원이사회 개최



2차 재단 후원이사회가 지난 5월 2일(화) 18시 30분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진행된 임원 문화나들이를 겸한 지역문화교류마당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아쉬웠다는 평가와 함께 오는 6월 13일(화)에 개최되는 2023 회원 만남의 날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2월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회원조직 사업의 후속조치로 6월 중에 회원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반기에 1~2개의 소모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2차 운영위원회 개최



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일(화) 18시 30분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문화정책 평가 1년 포럼 개최 건과 재단 회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김경환(이야기브릿지 대표), 김병희(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단장) 두 신규 운영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연대

광주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공공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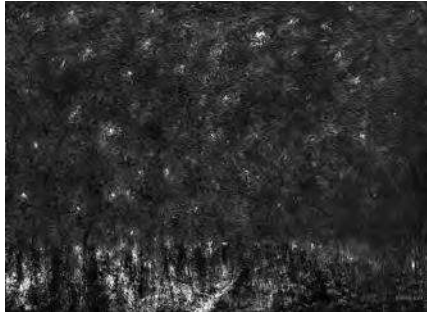
광주시의회는 10일 시의회에서 '전일방 부지 어떻게 재대로 개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와 전일방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는 '국제지명현상공모 결과 및 사후과제'라는 주제로 당선작의 주요 계획 내용과 수정사항 검토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또 발제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규모 산정 기본원칙'이라는 주제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 사전협상 사례를 설명하고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영석 전 광주대학교 교수,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소경용 (주)휴먼홀딩스 PFV대표,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종호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신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한희원 작가(회원), 한희원의 대작, 서울서 만난다
 50여 년 동안 현실과 근원적 삶에 천착해 서정적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지역 대표 작가 한희원이 서울에서 대작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갖는다. 한희원 대작전 '대지, 별, 바람, 그리고 생의

재단·회원소식



한희원 작 '상처받은 별을 향해 걷다'

시간'이 서초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5월 4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작전은 2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을 500호부터 200호까지 대작 50여 점으로 가득 채운 자리다. 이번 대작전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지난 2019년 1년 동안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안식년을 가진 작가가 트빌리시 작업 이후 변화한 화풍을 바탕으로 내면의 철학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신작.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작업은 별, 바람, 대지, 하늘 등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생의 감정을 한 폭의 시처럼 풀어냈다. 한희원 작가는 "신작이자 대작으로 가득 채운 이번 대작전을 서울에서 큰 규모로 열게 돼 보람되고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무등일보> 발췌

김대현 이사(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쇄원 한시 150수 주제별 정리



소쇄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근대기까지 지어진 한시 150수를 주제별로 정리한 한시선이 발간됐다. 전남대 국문과 김대현 교수가 최근 『소쇄원 한시선』을 펴냈다. 김 교수는 당초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 30영'에 대한 좀 더 완전한 번역을 생각했다. 그러나 소쇄원의 현판 한시, 관련된 작품이 추가되면서 이번 한시선집

으로 엮은 것. 알려진 대로 소쇄원의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번 책에는 양산보의 '소쇄옹 제영'과 '면양정 제영', 송순의 '소쇄정', '소쇄처사를 보내면서' 외에 도 임억령의 '지암에게 드림', 김인후의 '소쇄원에 드리다', 양

자징의 '소쇄원', 고경명의 '만시' 등의 시와 번역이 담겨 있다.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소장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호남 지방문화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호남누정 기초목록', '광주문화재단 누정총서 10권' 등 누정 원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여 년 전부터 소쇄원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썼고, 틈나는 대로 소쇄원을 찾아서 시문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렸다"며 몇 년 전에는 "전남대 '소쇄원 연구회' 회원들과 관련 한시를 함께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원고가 바탕이 돼 책을 엮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광주일보> 발췌

남성숙이사(광주매일 대표이사), 광주매일신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



광주·전남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주매일신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식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과 김광아 광주시 양궁협회장, 마찬호 남양건설 부회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윤명희 전남도의회 의원, 김수관 창조클럽 총동창회장 및 원우 등 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10기 아카데미 강사진은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용 미술사,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호승 시인, 오정해 국악인 등 정치·사회·경제·문화계 각 분야 전문인들로 구성됐다. 특히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할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올해 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 등 시대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창조·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매일> 발췌

서순복 이사(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광주 동구, '동구발전혁신위원회' 새 출범...서순복 위원장 선출



동구발전혁신위원회는 문화, 관광, 경제, 도시, 환경, 복지, 건강, 자치분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대표 자문기구로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정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순복(조선대 법학과 교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과 향후 혁신위 운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혁신위는 구정 주요 정책, 민선 8기 공약사항, 지속가능발전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문화관광 ▲민생경제 ▲도시환경 ▲복지건강 ▲자치분권 등 5개 분과로 구성해 구정 현안에 대한 자문기구 및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뉴스투데이> 발췌

지형원 이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성료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회장 지형원)이 공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유준상 씨의 '아쿠아테라리움을 품은 수상정원, 경양정'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선정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진행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52건이 접수된 가운데 수상작 이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제안과 관련해 참신하고 좋은 아이

디어가 많아 향후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준상 씨는 "아시아문화광장에 천장이 생겨 날씨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되고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구도심, 충장로의 유입인구가 늘어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쿠아테라리움을 품은 수상정원, 경양정'에 대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광남일보> 발췌

천득염 회원(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호남 정체성 기록 보존하고 알리는 데 최선"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은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호남진흥원)은 "올해로 설립 6주년을 맞는 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면서도 "호남의 한국학 자료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민과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진흥원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 의제로 공동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호남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학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7년 설립됐다. 호남진흥원은 설립 초창기에는 문헌 위주의 고유 업무에 역점을 뒀었다. 그러나 성리학의 유학 중심의 문헌사가 위주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다. 천 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의 문헌 중심의 연구와 자료 수집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토대로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학과 호남학을 연구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콘텐츠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광주일보> 발췌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박종찬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원
김병희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단장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치매예방관리센터 센터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지나 음악/공연기획 전문가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주)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페르소나시 본부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주)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현서라 청년인턴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정철웅 시인, 문학박사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편집 후기

기후위기를 실감케하는 날씨의 연속입니다. 지독한 가뭄에 단수걱정에 봄꽃은 또 왜 그리도 한꺼번에 피고지고했는지, 또 여름은 또 왜 이리 빨리도 기승을 부리는지... 자연사가 엉클어진 탓인지 인간사는 더더욱 가관입니다. 사람 사는 땅의 질서나 규칙이라는 게 이리도 허망할 수 없고, 자꾸 뒷걸음질만 치는 세상 일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창』은 시대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호 알차게 제작했습니다. 민선8기 문화정책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니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 씁쓸합니다. 부문부문 문화판을 짚어보았으나 거기도 신나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 아쉽게 느껴지는군요.

바쁜 와중에도 지역 문화판을 걱정하며 글 보내주신 필자님들 또는 문화예술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준비해 가을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위 잘 보내십시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t.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여행자 서비스 제공,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BAIC

BUK-GU ART TRAVEL CENTER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차별화된
예술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광주 북구



나눔이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광주남구

고향사랑 기부



기부하고 혜택 받자!!

기부자 혜택은?

- 세액공제
- 답례품
- 고향사랑 및 남구 발전



고향사랑e음 QR

기부하는 방법은?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오프라인 : NH농협은행